

고등교육 정책소식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기관 선정 -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5개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009년 6월 10일(수) 2009년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응모한 14개 대학 중 사업계획이 우수한 5개 대학(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지원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입학사정관제 정착의 핵심으로서 자질있는 입학사정관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추진되었으며, 입학사정관 희망자, 기 채용된 입학사정관 또는 대학 및 학교에서 추천받은 자,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및 고교의 진학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각 대학은 대입전형의 이해, 입학사정관으로서의 기본소양 및 윤리의식 정립, 입학사정관의 역량 및 실무능력의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되며, 1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3~4개월 범위에서 주간반·야간반, 주중반·주말반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으로 60~120명을 교육하게 된다.

◆ 이번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양성교육을 거친 양질의 입학사정관이 육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향상 및 고교 교육현장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이해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교협은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되는 대학들이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지역 대학간 컨소시엄 및 지역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별로 특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선발과 육성을 위한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역할』 국제세미나 개최

대교협은 2009년 6월 5일(금)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인재선발과 육성을 위한 입학사정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학총장,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등 25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대교협은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입학사정관제도의 본원지인 미국과 일본 대학의 다양한 입학사정관 운영

사례를 소개함은 물론, 입학사정관제도의 국내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의 요소들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대학입학사정관의 대표적 사례로 인디애나대학교 Michael McRobbie 총장이 “대학의 인재 선발과 육성”을 소개하고, 전미입학사정관협의회에서 추천한 Douglas C. Thompson 박사가 “대입전형에서 전문가의 역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인재선발”, 그리고 일본 큐슈대학교 입학센터 소속의 하야시 아즈히로 교수가 “입학사정관 전형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국내 대학 관계자와 국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며,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와 국내 정착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연수활동을 강화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빠른 시일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대학캠퍼스에서 먼저 실천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환경부,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내 대학캠퍼스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한 ‘그린캠퍼스 총장선언대회’를 2009년 5월 13일(수) 연세대에서 개최하였다. 「그린캠퍼스 운동」은 대학 캠퍼스 내 친환경 시설 조성,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정 개발·적용 등을 통하여 캠퍼스 구성원들 간 환경문제를 공유, 실천하기 위한 운동으로 국내에서는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08.11.25. 창립)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 28개 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는 대학별 사례 발표회와 기획연구 등을 통하여 개별 대학별로 추진되던 자연친화적 캠퍼스 운동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며 교육과정개발 및 녹색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 자연친화적 캠퍼스 운동 사례: 차 없는 캠퍼스, 생태공원 조성, 저전력 강의실 조명 시스템, 환경문화제 개최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 참여 대학

건국대, 계명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부산외국어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주대, 조선대, 충남대, 한경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외대, 한동대, 한림대, 홍익대 (이상 28개 대학)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

대교협은 2009년 6월 16일(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대교협에서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대학 총장들은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대입전형 하에서는 창의성과 인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계발시켜주는 초·중등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학도 21세기 지시기반사회를 선도해나갈 창의적이고 잠재능력이 풍부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바람직한 인재란 사교육의 도움이 없이 초·중등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창의력과 종합적 사고력 등을 최대한으로 육성·계발시켜줄 수 있는 공교육 체제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첫 출발점은 사교육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학생선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고 공동 선언을 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동 선언은 대학 총장 및 입학처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장단의 검토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전문과 8개 합의사항, 그리고 정부·고등학교·사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대학 총장을 대표하여 대교협 회장(손병두 회장, 서거석 부회장, 이배용 부회장, 이희연 부회장)이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대학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대교협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8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학, 정부, 고등학교와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청회 개최

대교협은 2009년 5월 22일(금)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6월 말 수립·발표 예정인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그동안 T/F팀 연구결과와 세미나, 설문조사, 실무위원회 및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논의되고 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교협이 마련한 시안에 대해서 7명의 토론 발표가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2011학년도 기본사항 시안에는 대입3원칙('3불')과 관련하여, 사전 논의과정에서 가장 많은 검토와 토론이 있었고, 비록 대입자율화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수정·폐지함에 따르게 될 교육내·외적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2011학년도 기본사항 시안은 대입자율화와 입시업무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급격한 내용 변

화를 지양하고, 큰 틀 속에서 2010학년도 기본사항과 내용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마련되었다. 몇 가지 변화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선진형 대입전형' 관련 근거 조항 신설 : 성적위주가 아니라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잠재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새로운 학생선발 방식인 '선진형 대입전형'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
- (2) 합격자 발표 및 등록과 관련한 사항 보완 : 합격 및 등록 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표기함.
- (3)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내용 추가 : 2010학년도부터 대폭 확대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사정관 관련 조항을 내용적으로 확대함.
- (4) 선발 사정 방법 관련 조항 추가 신설 : 2009학년도 입시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보완함(*다단계 전형의 1단계 선발인원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
- (5) 대학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실시와 관련한 대상지역 설정기준 명료화 : 정원으로 입학정원의 4% 이내로 선발할 수 있게 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실제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함.

정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본격 논의

교과부는 2009년 5월 7일(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관계자, 교육계, 산업계 인사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대학선진화위원회 구성(14인)

변호사(1), 공인회계사(1), 사학관계자(3), 교육계(4), 산업계(1), 언론계(1), 유관기관(2), 정부관계자(1)

이날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부실 사립대학 증가는 고등교육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대

학 구조조정은 전체 대학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향, 위원회 역할, 향후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있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2012학년도 이후 학령인구 감소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대학의 증가에 따른 소위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과부장관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동 위원회는 2009년 6월 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최종 부실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동 위원회가 부실 사립대학 판정기준, 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면, 이를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공고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도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총사업비 340억원)을 공고하였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3천여 개에 달하는 대학부설연구소 중 특성화·전문화 발전계획을 수립한 우수연구소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학 내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구소 인프라 지원을 통해 소속 교수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유도하고, 박사후 과정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전임연구인력으로서 연구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할 연구소는 총 74개 연구소(이공분야 34개, 융복합분야 2개, 인문사회 38개)이며, 이 중 이공분야 17개, 융복합분야 2개, 사회과학분야 3개 연구소를

새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우수한 중점연구소 선정·육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함께 신성장동력분야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학문간 융복합을 통해 연구소별 특성화·전문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거점으로서 대학연구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교협,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술교재 발간

대교협 논술연구회는 고교 현장에서 논술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논술 학습 프로그램:《논술지도의 원리와 실제》(인문·자연계)’를 발간하여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한다.

《논술지도의 원리와 실제》는 각 대학의 기술 문제를 바탕으로 대학이 요구하는 통합교과 논술의 방향을 탐색하면서, 정직하게 학생의 실력을 점검하고 키워줄 수 있도록 ‘교사용 자료’와 ‘학생용 워크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공신력 있는 논술 분석 자료집을 발간하여 통합논술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교협 논술연구회는 논술수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교육 논술교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금년도 처음으로 ‘논술 학습프로그램:《논술지도의 원리와 실제》’를 발간하게 되었다. 또한 피드백의 일환으로 현직 논술 담당 교사인 교재 집필진이 각 영역별로 실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논술수업 표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년대비 '09년 대학등록금 사실상 동결

2009년 대학 등록금 현황 정보공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09.4기준) 전년대비 '09년 대학등록금 인상율이 0.5%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전체 평균 등록금은 '08년과 동일한 4,169,000원이고, 사립대 전체 평균등록금은 '08년 7,380,000원보다 0.5% 인상(40,000원)된 7,420,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하여 대학들이 '09학년도 대학등록금을 동결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12월 5일 18개 주요 대학 총장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에 대한 대학의 이해와 이에 따른 대학의 '09년 등록금 동결을 협조 요청 하였다.

향후 교과부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 추진,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장학기금의 확대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경감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09년도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 공고

교과부는 2009년 6월 11일(목)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11개국 19개 기관에 파견할 과학기술지원단 30명을 모집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대학·연구기관간의 산학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

이 사업은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이공계 우수 인력을 개도국 대학·연구기관에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파견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대학·연구기관, 그리고 해외진출 우리 기업 간의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 과학기술지원단 모집 〉

과학기술지원단원(Techno Peace Corps: TPC)은 이

공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개도국 대학 및 연구소에서 영어 또는 현지어로 강의·연구·기술지도가 가능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지원단원의 파견기간은 1년이고, 파견자에게는 왕복항공료, 현지정착금, 체재비, 활동지원비, 4대 보험 등이 지원된다. 과학기술지원단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이공계 역량 있는 인재를 글로벌 리더 종합정보망(www.globaljump.go.kr)을 방문하여 '2009년도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 공고'를 클릭해 지원서를 다운 받아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과학기술지원단원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및 외국어 능력 시험, 3차 신원 및 신용조회, 신체검사 등으로 단계별로 실시된다. 선발된 단원은 국내 사전교육을 거쳐 금년 10월부터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지원단원은 2006년 17명을 최초로 파견한 이후 현재까지 8개국에 모두 71명을 파견했으며, 2009년 6월 현재 27명이 8개국 15개 기관에서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기관 협력사업 지원 〉

'기관 협력사업'은 우리나라와 개도국 대학·연구기관간의 과학기술 협력 활동과 해외 진출 우리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도국 대학이 공동으로 인재 양성을 하고, 개도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동시에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은 교과부(www.mest.go.kr)와 글로벌 리더 종합정보망(www.globaljump.go.kr)에 탑재된 사업계획서를

다운 받아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現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1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 사항 발표

대교협은 2009년 6월 15일(월) 전국 4년제 대학의 「201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집계·발표하였다. 201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실시 대학은 전체 198개 대학 중 170개교(국·공립 31개교, 사립대학 139개교)이며, 재외국민 모집인원은 총 4,518명이다. 이 중 서울대 등 33개교는 순수 외국인 등 정원제한 없는 전형만 실시한다.

구분	대 학 수	모 집 인 원
국·공립	31개교	980명
사립	139개교	3,538명
합 계	170개교	4,518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수능 및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하는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교과내용과 다양한 외국어 등을 기초로 하되, 외국고교 재학기간과 국내·외 학교 재학성적 및 상·하급 학년에서의 수학결손 등을 반영하여 전형 방법을 서류전형, 면접, 필답고사, 수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등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201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은 책자로 제작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 각국 재외공관에 배포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대학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http://univ.kcue.or.kr>)에 탑재하여 수험생,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벌여

최근 정부는 신물질 창출, 첨단장비 활용 등의 특성으로 물리·화학·생물학적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어 대학 등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연구실 사고는 '06년 7건, '07년 16건, '08년 37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과부는 대학의 연구·실험실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연구활동중상자, 대학(원)생들의 보호를 위해 '대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행사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대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여름방학 전 중앙대, 울산대, 고려대, 제주대 등 7개 대학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일간씩 해당 대학과 합동으로 사고사례 사진전,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 가두캠페인 등이 실시된다. 9월 이후 상지대, 연세대 등 10개 대학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연구실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연구실환경개선, 안전문화확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선정결과 발표

교과부와 지식경제부는 양 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중인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지원대학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총 17개 대학을 선정·발표하였다.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은 대학의 교육·연구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전환,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및 대학의 기업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각각 대학과 산업계의 주무부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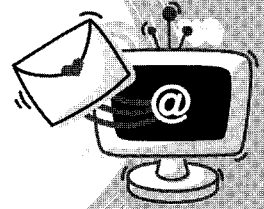
【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선정대학 현황】

구분	대 학 명	권역	대 학 명
수도권 (5)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안산)	대경권 (3)	강릉원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충청권 (3)	충북대학교 한밭대학교 호서대학교	동남권 (3)	경상대학교 동명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호남권 (3)	순천대학교 전주대학교 호남대학교	* 비교 : 강원은 대경권에, 제주는 호남권에 포함	

교과부와 지경부가 지난 '04년부터 양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해 온 사업이며, 그동안 1단계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형으로 대학체질 개선, 산학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지역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5개 광역경제권별로 접수된 80개 대학을 대상으로 그 동안 산학연 전문가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광역경제권별 평가로 11개 대학(권역별 2개, 수도권은 3개)을 선정하고 광역권별 경쟁에서 탈락한 후보대학(3,4위)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6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는 등 총 17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교과부와 지식경제부는 향후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기존의 대학 중심의 획일화된 산학 관계에서 대학-지역산업 중심의 유기적 산학 관계로의 변모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2+3체계)로 사업성과가 부진한 대학은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중단 및 예산 차등지원 등의 조치로 사업실적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자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회원 대학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국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선별·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재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 weeklynews@kcue.co.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
<http://www.kcue.or.kr/> → 대학교육소식 → 주간대학교육

회원 대학 소식(영문) 보기 :
<http://english.kcue.or.kr/> →
News on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
Member Universities News

구독신청
대교협 홈페이지 내 대학교육소식 메뉴에서 신청해주시면,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